

# 대학생의 시간전망 유형별 시간관리와 생활만족도

김 외 숙(방송대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시간전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 및 시간관리와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소재 3개 대학 및 지방소재 1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382부의 질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시간전망 유형은 과거지향형, 현재충실형, 미래무감각형, 미래지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지향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 높은 분포를 보인 유형이 현재충실형 > 미래무감각형 > 미래지향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시간전망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전공, 시간관리교육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시간전망 유형에 따른 시간관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시간관리와 시간관리의 하위영역인 목표지향적 행동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총시간관리의 경우 미래지향형 집단의 시간관리 수준이 가장 높고 미래무감각형과 과거지향형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하위영역인 목표지향적 행동은 현재충실형과 미래지향형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들 두 유형과 다른 두 유형들은 서로 차이를 보여 현재충실형과 미래지향형 집단의 대학생이 목표지향적 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대학생의 시간전망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충실형과 미래지향형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들 두 형이 과거지향형과 차이를 보였다. 현재충실형과 미래지향형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과거지향형 집단의 생활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시간전망 유형 중 과거에 집착하는 과거지향형 집단이 41.6%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충실한 집단인 미래지향형의 분포는 8.9%로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간전망 비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미래지향형 수준이 낮게 나타난 10년 전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대학생의 미래지향성이 낮은 점은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장기전망이 가능하고 개인의 행동선택이 자율적인 사회일수록 시간전망이 더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자율적인 사회환경을 육성하는 사회조직과 운영원리를 개발할 필요성도 크다고 본다. 시간전망이 목표지향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시간전망과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차후과제로 제안한다.